

우리의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다(5) 그리스도

Our World Belongs to God



심재승 (돌트칼리지 교수)

칼빈대학교에서 철학을 전공하고 칼빈신학교에서 신학석사를 하고 조직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미국 돌트 칼리지(Dordt College)에서 신학교수로 재직중이며, 기독교 교육, 기독교대학 교수 훈련과 공공신학에 관련하여 일하고 있다

북미개혁교회(Christian Reformed Church in North America) 교단에서 발행한 『우리의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다 (Our World Belongs to God)』를 연재합니다. 이 문헌은 개혁주의적인 신앙을 현재의 사고와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활용하여 살 것인가를 다룬 문서로 한국 교회에 소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연재합니다. 이 문헌의 소개는 이 책을 한국어로 번역한 돌트칼리지(Dordt College)의 심재승(신학) 교수가 맡았습니다. 이 문서의 한글 전문은 "<https://www.crcna.org/welcome/beliefs/contemporary-testimony/우리의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다>"에서 볼 수 있습니다(편집자).

본문해설

‘구속’에서 구약으로부터 신약에 이르는 구속사의 큰 줄기를 설명한 본문은 ‘그리스도’에서 그가 구속을 어떻게 성취하셨는가를 설명하고, 이어지는 ‘성령’에서는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 성령께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구속을 우리들에게 적용하고 계신가를 해설한다.

단락 23은 전통적인 기독교론의 두 주제 중에서 첫 번째인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24-27에서는 두 번

째 주제인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위하여 행하신 역사를 해설한다. 우선 중요한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이다.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셨다. 메시아는 히브리어이고, 그리스도는 히브리어인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한 단어의 영어 표현이므로,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동의어이다. 구약에서 메시아가 예언되고, 예수가 메시아로 오셨으며, 신약성경에서 메시아를 그리스도로 불렀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가 그리스도이다’라는 신앙고백을 지닌 이름이다. 그것은 나사렛 사람 예수가 단순히 사

그리스도 (Christ)

23.

하나님께서서는 세상을 자신에게 화목시키리라는 그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영원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인류와 연합하셨다.
그리스도는 우리와 하나되며 동시에 하나님과 하나된
완전한 인간이며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오랫동안 기다려 왔던 메시아이다.
그는 성령에 의해 잉태되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

24.

둘째 아담으로서 예수께서는 우리가 저버렸던 순종의 길을 선택하셨다.
그의 세례와 유혹들, 그의 가르침과 기적들, 악마와의 싸움들,
그리고 죄인과 친구를 사귀면서 예수님은 우리 앞에 온전히 의로운 인간의 삶을 사셨다.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이시니 그는 성부 하나님께 사랑함으로 순종하시고
그의 행동과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에 온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나타내셨다.

25.

우리를 대신해서 특별히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온 생애 동안 고난을 당하셨다
그는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짊어지셨으므로 그의 희생이 우리의 죄과를 제거하였다.
하나님께서서는 그를 죽음으로부터 살려 내셨다.
무덤으로부터 걸어 나오신 예수님은 죄와 죽음을 정복한 생명의 주이시다!
그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되었고 새 생명이 주어졌으며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로워져 그와 함께 동행하도록 부르받았다.

26.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신 예수님은 유일한 중보자이시다.
예수님 홀로 우리의 죄과를 지拂하셨다. 예수님 외에 다른 구세주는 없다.
모든 면에서 그와 같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그 사랑이 우리의 소망이 된다.
자비를 구하는 것 외에 드릴 것이 없는 죄인에게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는 거저 주어졌다.

27.

예수님은 승리하심으로 승천하시어 우리의 인성을 하늘의 보좌로 올려 놓으셨다.
모든 권세과 영광, 그리고 신적인 능력이 예수님에게 주어져 거기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신다.
예수님 안에 피난처를 찾은 모든 사람은 복받은 자들이다.



1. 예수께서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누가복음 1:31-35, 요한복음 1:1-14, 그리고 히브리서 1:2-3에서 살펴보자.
2. 로마서 5:12-21에 그리스도는 둘째 아담으로 기록되어 있다. 히브리서 2:10-18과 4:14-5:2는 그리스도의 의로운 인간의 삶을 가르치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할 것에 대하여 마가복음 1:1, 14-15에서 살펴보자.
3. 히브리서 5:7-10에서 온 생애동안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살펴보자. 사복음서는 십자가에서 받으신 예수님의 고통의 깊이를 기록하고 있다. 마태복음 28:1-10과 고린도전서 15:20-28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를 살펴보자.
4. 디모데전서 2:5과 히브리서 9:11-15에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로, 요한복음 14:6과 사도행전 4:12에는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로 기록되어 있다. 로마서 8:29, 고린도후서 3:18, 그리고 에베소서 1:3-4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어 그리스도와 같이 된 우리의 선택됨을 살펴보자.
5. 승천하신 주님으로서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권세와 중재하심을 마태복음 28:18, 시편 2:12, 요한일서 2:1-2, 그리고 히브리서 7:25에서 살펴보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인성이 승천함을 히브리서 4:14-16, 에베소서 1:20-22, 2:6, 그리고 골로새서 3:1-4에서 살펴보자.



람이 아니라, 구약 선지서들에서 예언된, 이스라엘이 400여 년간 고통 속에서 기다려온 그 메시아라는 짧고 단순한, 그리스도인의 가장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다.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서들에 예언된 메시아이며 동시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자신이다. 다시 말하면, 구약에 전개된 이스라엘의 구속사를 배경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기로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보내신 분이 하나님 자신이 성육신하신 예수라는 말이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성삼위 중의 한 분이신 말씀이시며, 창조주이신 분이 성육신하여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하여 생명의 주로 오신 분으로 소개한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라는 기록이 예수님의 근본 정체성과 신성을 증거한다(요한복음 1:1-4).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역사를 성경은 “둘째 아담”의 역사로 표현한다(로마서 5:12-21). 그것은 첫째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므로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패턴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의롭게 됨을 말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셨던 율법에 예수께서 온전히 순종하셨다는 것이다. ‘그의 세례와 유혹들’의 가르침과 기록들, 악마와의 싸움들, 그리고 죄인과 친구를 사귀는 과정에서 예수님은 온전히 율법에 순종하므로 ‘온전히 의로운 인간의 삶’을 사셨다(단락 24). 이것은 예수께서 이루신 구속이 구약에 전개된 구속사를 따라

서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이스라엘이 율법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실천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제사장, 왕, 선지자들이 제 기능을 못하므로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한 곳에 예수께서 새 이스라엘로 오셔서 순종하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신 것이다.

예수님의 순종은 그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대표되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시키신 하나님의 응답으로 구원을 이루게 한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린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마가복음 8:31)”의 기록은 고난 받는 종으로 예언된 메시아의 성취이다. 메시아는 왕으로 오시되 고난 받는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의 고난은 제사장들이 드리던 희생 제물의 의미와 목적을 성취하였다. 그래서 단락 25는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의 역사를 ‘온 생애 동안 고난을 당하였다. 그는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짊어지셨으므로 그의 희생이 우리의 죄과를 제거하였다’고 요약하고 있다.

예수가 율법에 순종한 온전한, 죄 없는 인간으로 십자가에 처형되었으므로, 그는 죽음에 매여 있을 수 없었다. 예수의 부활은 그가 행한 모든 구속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확인하신 증거이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키심으로 ‘죄와 죽음을 정복한 생명의 주’가 되게 하셨다. 예수가 죄인을 대신하여 고난을 받고 죽었다고 해도 만약 죽은 채로 남아 있다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그가 부활하여야 그와 함께 죽은 그리스도인들이 죄 용서를 얻을 뿐 아니라 그의 새 생명에 연합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구속사역에 매우 중요한 성취 조건이 된다. 그의 부활은 동시에 ‘첫 열

매’로서 믿는 백성들도 부활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첫 열매는 수확의 첫 신호로서 다가올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한다. 그리스도 예수가 부활의 첫 열매로 그다음은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다음은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라고 증언한 바와 같이 나라이다(고린도전서 15:23-24). 예수가 부활했으므로 그의 새 생명에 연합한 그들도 새 생명을 가진 육신으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께서 지상에서 완성하신 구속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근거이며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보증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주변에 다시 모여든 제자들은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니이까’라며 세상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었다. 그러나 예수께서 가지신 구속의 계획은 그보다 훨씬 광대한 것이었다. ‘예수님은 승리하심으로 승천하시어 우리의 인성을 [예수께서 육신을 가지신 채로 승천하셨으므로] 하늘의 보좌로 올려놓으셨다. 모든 권세와 영광, 그리고 신적인 능력이 예수님에게 주어져 거기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부 앞에서 우리를 변호 하신다’(단락 27).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에서 보듯이 우주적인 권세를 가지고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고 중재하시는 왕이시다.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예수께서 그의 성령, 곧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어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 주시며 예수께서 완성하신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신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께서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라고 말씀하셨다(요한복음 16:7).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이 현재 우리에게 이루어

지고 있는 구원에 대한 확인이며 장차 올 완성된 나라와 우리의 구원에 대한 보증이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여기서 '새 생명'으로 살 수 있다. 새 생명은 다만 영혼의 변화만이 아니라, 구속된 그리스도인의 전인적인 경건과 삶의 능력을 의미한다. 고린도후서 5장의 말로 하면, 새 생명은 하나님과 화목 되었으니 삶에서 화목 된 삶을 살라는 의무요 책임이다. 화목 된 삶은 본문이 언급하는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로워짐'을 포함한다. 그리스도인의 자유함은 화목 된 삶을 사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수께서 역지로 성육신하시고 죄를 짊어진 것이 아니라, 죄인조차 사랑하시는 그의 은혜로 자원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화목된 자유로움으로 이웃을 사랑하도록 요구된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자유는 자유롭게 살며 즐기기 위함이 아니라, 자유롭게 자유를 포기하기 위하여, 그리하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한 방편으로 주어졌다(고린도전서 8장).

둘째 아담으로 성경이 설명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의 역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우선 그것은 '우리를 대신해서'라는 말이 표현하듯이 대리 속죄의 의미를 가진다. 첫 번째 아담이 스스로의 판단과 의지로 죄를 선택하므로 마땅히 죄인이 되고 그 모든 후손이 죄인이 된 것과 달리, 예수 그리스도는 성삼위의 한 분이신 하나님으로서 성육신하여 낮아질, 특별히 십자가에 처형될 아무런 이유가 없는 분이였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원하심이 아니라면 이해에 접근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가 대리 속죄를 가능하게 하였다. 구속을 위하여 성경이 가르치는 첫째 아담-둘째 아담의 상관관계는 이러한 하나님 사랑의 신비로만 이해할 수 있다.

성경은 구속을 '화목'으로 설명한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 되었고 새 생명이' 주어졌다(단락 25). 바울은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구속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케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골로새서 1:20-22). 구속이 화목이라는 사실은 구속을 이해하는 데에 매우 중요하다. 화목은 구약의 역사로부터 그리스도의 구속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하신 모든 일들을 배경으로 삼아 구속을 설명한다. 창조로부터 시작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파괴됨, 언약과 율법으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는 구속의 계획, 그리고 그리스도에 이르러 그 구속이 완성됨,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행하신 모든 역사가 그 '화목'이라는 개념에 포함된다. 화목이 표현하는 구속은 우선 하늘과 땅을 포함하는(이러한 언어는 창조를 기억나게 한다) 만물의 화목을 의미한다. 성경은 하늘과 땅의 창조로 시작하여, 그리스도의 구속을 하늘과 땅을 포함한 만물의 화목으로 계시하고, 구속의 성취인 새 하늘과 새 땅의 완성으로 마친다. 하나님의 주권과 그의 나라가 얼마나 신비롭고 광대한지 짐작하게 한다. 그 광대한 구속 안에 믿음을 통한 인간의 구속,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의 구속이 있다. 만물의 화목이라는 광대한 우주적인 구속 안에 개인적인 구속의 의미와 목적이 있다. 창조기사가 만물의 창조

에 이어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인간을 향한 창조 소명이 이어지듯이, 만물의 화목 이후에 인간의 화목을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연결 시킴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있는 유일한 중보자이다. 히브리서 9장은 예수께서 대제사장의 직무를 완성하셨으므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고 증거 한다. 구약에서 제사장은 동물의 피를 희생제물 삼아 성소에 들어갔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라는 말씀처럼 자신을 희생함으로 제사장의 직무를 완성하셨다(12절). 제사장이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는 신비로운 일이 일어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죄 용서를 단번에 완성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사이에 더 이상 제사장이나 중보자가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 그 구속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

도이기 때문에 그분 외에 '다른 구세주는 없다'고 본문은 확인하고 있다.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되는 길은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로 이루어지는 택함뿐이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심으로 자신의 백성의 근원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같은 은혜로 택하신 백성들을 불러 모으신다. 율법이 언약에 더해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따라 살아야 하는 기준이 분명해진 다음에, 구약의 긴 역사와 신약의 교회 시대를 통틀어서, 모든 백성들이 깨닫는 것은 그들의 선한 행동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기준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이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은혜로만 이루어진다. '자비를 구하는 것 외에 드릴 것이 없는 죄인에게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는 거저 주어졌다'(단락 26).

